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211)(11/12/2022)

제 3 권 내적 위로

58 장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들이나 비밀에 속한 일들을 파헤치려고 하지 않음, 4-6 절

롬 10:11-12 - 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약 2:1, 9 - 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9.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잠 14:31 -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 19:17 -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4. 나는 신앙에 있어서 첫째인 자와 꼴찌인 자를 알고 있지만, 헤아릴 수 없이 큰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품에 안는다. 나는 나의 모든 성도들 안에서 찬송을 받아 마땅하고, 만물 위에 송축을 받아 마땅하다. 내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들을 미리 예정하여, 그토록 큰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성도안에서 높임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지극히 큰 자인 나조차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작은 자와 큰 자를 둘 다 지은 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도들 중의 어느 한 사람도 비난하는 자는 나를 비난하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나머지 모든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것을 생각하고, 동일한 것을 원하며, 서로를 사랑한다.

5. 하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은, 그들이 그들 자신이나 자신들의 공로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고 자기애에서 벗어나서, 전적으로 나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고, 나를 기뻐하며 내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 그들은 영원한 진리로 충만하여,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로 타오르고 있어서, 그들의 사랑을 억누르거나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육신적이고 동물적인 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상태에 대하여 입을 다물게 하라. 그런 자들은 오직 어떻게 해야 그들 자신의 사사로운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는지만을 아는 자들이어서,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제멋대로 빠기도 하고 더하기도 해서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6.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데, 특히 하늘의 빛을 거의 받지 못해서, 온전한 영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더욱 그러하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대체로 본성적인 애정과 인간적인 우정을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끌리고, 땅에 속한 비천한 일들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늘에 속한 일들을 상상한다.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머리로 상상하는 것과 하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위로부터 임한 계시를 통해 보게 된 것 간에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존재한다.

말씀과 해설:

사랑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인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큰 자나 작은 자 모두를 차별없이 대하시고 모두를 품어 주신다는 것이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힘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잠 22:2 -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차별없이 품어 주신다. 롬 10:11-12 - 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차별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행하신다. 레 19:15 - 너희는 재판 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데도, 최악된 인간은 자기 보다 강한 자는 떠받들고 아부하고 자기 보다 약한 자에게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차별하며 무시하고 학대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의 비뚤어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차별없이 대하라고 말씀하셨다.

약 2:1, 9 - 1. 내 형제들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9.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은 부한 자들도 귀히 여기시지만 특히 남들보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레 23:22 에서,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들을 돌보라고 하셨다. 잠 28:27 -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주님을 멸시하는 자이다. 잠 14:31 -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신다. 잠 19:17 -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크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고, 작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 크면 큰 대로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행해야 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겸손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갚으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크거나 작은 것이 아니라 순전함이다. 고전 5:8 -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함은 진실, 정직, 온전한 상태 등을 의미한다. 세상적 기준으로 큰 자라고 다 교만한 것도 아니고, 작은 자라고 다 낮아진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 크다고 교만할 수 있지만, 크지만 더 겸손할 수 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의 형편이 어떻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전한 마음과 자세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은 구십 구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1)고 하셨다.

사람을 차별없이 대하고 순전함을 간직한 성도는 누가 있거나 없거나, 누가 보거나 말거나, 나에게 인간적인 유익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기를 힘쓴다. 이런 사람은 크다고 잘 대해주고, 작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실한 성도들을 유심히 보시며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신다. 마 10:42 -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모두를 차별없이 품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든지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말고 일어서자. 차별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차별없이 대하고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한 관심과 도움과 배려를 잊지 말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크고 작음이 아니라 순전함이다. 순전한 성도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순전함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2.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황윤일 선교사님(페루), 김기대 선교사님(캄보디아), 김데이비드 선교사님(오만), 김봉춘 선교사님(몽골)의 사역과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창립 50 주년을 준비하는 우리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감으로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